하이브 방시혁 "삼성·현대처럼 K팝서도 글로벌기업 등장 중요"

"'방시혁 다음' 준비하는데 많은 힘 기울이고 있어"
SM 인수 중단 "유무형 비용 훨씬 더 크게 느껴져"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이 '방시혁 다음'을 준비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관훈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회사가 되려면 제가 이 회사에 없더라도 빈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방 의장은 1994년 서울대 미학과 시절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받으며 가요계에 발을 들였다. 동갑내기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의 눈에 띄어 1997년부터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작곡가로 활약하며 히트곡을 쏟아냈다. 자신의 성씨인 '방'을 '평'으로 변환 가능한 '뱅(bang)'을 차용한 예명 '히트맨뱅'을 사용하기도 한 그는 음악 작업에서 만큼은 대담하고 실험적이다.

그룹 'god'의 '하늘색 풍선'과 '프라이데이 나이트', 비의 '나쁜 남자', 보컬그룹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보컬그룹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등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쏟아냈다.

2005년 JYP를 나와 자신의 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를 설립했다. 그리고 2013년 첫 남성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을 데뷔시켰다. 이 팀이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되면서 방 의장은 전 세계적인 제작자, 하이브는 전 세계적인 음악 기획사가 됐다.

방 의장은 원래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사실 창업을 하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경우에도 사업만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박진영에 공언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다 창업해 어느새 18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의장을 맡고 있다며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방 의장이 회사를 차린 이유는 음악을 오래하고 싶어서다. "작곡가는 본질적으로 프리랜서인지라 제가 오래 하고 싶다고 오래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더라도 나를 영원히 고용해 줄 수 있는 자기 회사를 차리자!'라는 다소 불순한 동기로 창업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하이브가 성장하고 '방시혁 다음'을 고민하며, 회사 안에 많은 제작자들과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고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덧붙였다.

방 의장은 K팝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산업'이 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이 자랑스러운 성취에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짚었다. 과거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임이 분명하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방 의장은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는 주요 K팝 회사들의 글로벌 음반원 시장 전체에서의 매출 점유율은 아직 2% 미만이다. 반면 글로벌 음악기업 메이저 3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은 한 회사가 15~3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3사를 합치면 전체 음악시장의 67.4%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현재의 K팝은 세계시장에서 '골리앗'과 같은 메이저 3개 기업들 틈에 있는 '다윗'과 같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등 주류시장에서 K팝의 성장률이 최근 둔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핫100' 차트 기준 2021년 대비 작년 K팝 음반의 차트인 횟수는 약 53% 감소했으며 K팝 음반 수출 성장률도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방 의장에 따르면, 한류의 인기가 꾸준할 거라 생각하기 쉬운 동남아시아에서도 K팝은 최근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 주요 국가의 음반수출 성장률은 작년 전년도 동기대비 -30%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스포티파이 차트에서도 연 평균 K팝 점유율이 작년 대비 28% 감소했다.

방 의장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해외에서 K-POP 고유의 노하우를 확장해 나가면서 글로벌 톱 티어 회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신규 플레이어로서의 신선함 그 이상이 필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삼성이 있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현대가 있듯, K팝에서도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등장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콩 영화 '뉴웨이브', 일본 만화 '슬램덩크'로 대표되는 1990년대 일본 만화의 문화적 전성기 등을 언급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아티스트와 실무자의 피땀눈물을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산업이 지닌 가치, 에너지가 훗날의 '추억'으로만 회상되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글로벌 슈퍼스타의 반복적인 탄생을 뒷받침해줄 인프라가 산업 전반에서 보다 탄탄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주류 시장에서 K팝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다양한 크리에이티브가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과 크리에이티브의 영혼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수준의 건강한 경영방식 ▲플랫폼을 개발하고 플랫폼이 품는 음악, 아티스트, 콘텐츠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기반 강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럼에도 방 의장은 무엇보다 K팝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티스트 존중,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 의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도 속에서 더 많은 인생의 아이러니와 만나게 될 거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아이러니가 더 '좋은 놀라움'으로 연결될 것이라 믿고 기대하며 소망한다"면서 "지난 10여 년간 아티스트와 업계 종사자, 팬덤이 함께 키운 글로벌 역량을 기반으로 골리앗과 어깨를 견주려는 다윗의 도전을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청했다. "그리고 저부터, 전세계가 우리가 만든 음악과 콘텐츠를 오래 즐길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하이브는 최근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절차를 추진하다 중단했다. 대신 SM 경영권을 인수하는 카카오와 플랫폼 관련 협업을 하기로 했다. 방 의장은 인수 절차 중단 이유로 "유무형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서"라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 리소스가 들어가고 또 구성원의 감정·노동이 들어갔다. 이것까지 감내하고 하면 하이브스럽지 않다. 이런 인수보다는 원래 로드맵대로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드리핀, 日 두 번째 싱글 '헬로 굿바이' 발매

그룹 '드리핀(DRIPPIN)'가 일본 새 싱글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5일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드리핀은 이날 0시 아이튠즈, 레코쵸크, 애플뮤직 등을 통해 일본 두 번째 싱글 '헬로 굿바이(Hello Goodbye)'음원과 동명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드리핀의 새 싱글 '헬로 굿바이'에는 동명의 타이틀곡이자 졸업 시즌의 이별과 만남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상큼 청량한 청춘송 '헬로 굿바이'와 신곡 '미라이(MIRAI)'가 수록돼 있다.

또 지난해 한국에서 발매한 첫 번째 정규앨범이자 드리핀만의 독보적인 '빌런즈 에라(Villain'z Era)' 세계관 스토리의 화려한 대미를 장식한 '빌런 : 디 엔드(Villain : The End)'의 타이틀곡 '더 원(The One)' 일본어 버전까지 담겨 있다.

특히 초회 한정반에 포함된 DVD를 통해 일본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고군분투하는 드리핀의 귀여운 모습을 담은 '드리핀 채널 볼륨2(DRIPPIN Channel Vol.2)' 영상까지 만나볼 수 있어 글로벌 팬들의 반응이 더욱 뜨겁다.

또한 드리핀은 새 싱글 발매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3시, 7시 2회에 걸쳐 도쿄 에비스 리퀴드룸(LIQUIDROOM)에서 컴백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났다.

드리핀은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신곡 '헬로 굿바이'와 '미라이' 라이브 무대를 처음 선보인 것은 물론 '더 원'과 '빌런(Villain)' 일본어 버전과 지난해 5월 발매한 일본 데뷔 싱글 '쏘 굿(SO GOOD)' 무대까지 모두 선보이며 현지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냈다.

농구 영화 '리바운드' 다음달 5일 개봉…안재홍 주연작

예능에서 활약한 '장항준 감독' 새 영화

배우 안재홍이 주연한 영화 '리바운드'가 다음 달 5일 관객을 만난다.

바른손이앤에이는 15일 이렇게 밝히며 메인 예고편과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 작품은 2012년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 중·고교 농구대회에서 기적과도 같은 활약을 한 부산중앙고 농구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는 한 때는 농구 명문으로 불렸지만,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부산중앙고 농구부에 고교 농구 MVP 출신 코치 '강양현'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안재홍이 강양현을 맡았고, 이신영·정진운·김택·정건주·김민·안지호 등이 출연했다.

연출은 최근 '알쓸인잡' '알쓸범잡'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한 장항준 감독이 맡았다.

각본은 장 감독의 아내이자 국내 최고 드라마 작가로 손꼽히는 김은희 작가, '수리남' 등을 쓴 권성휘 작가가 공동 책임졌다.

뉴시스

AOA 출신 신혜정, 강하늘 소속사와 계약

그룹 'AOA' 출신 신혜정이 배우 강하늘과 한솥밥을 먹는다.

티에이치컴퍼니는 15일 신혜정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배우로서 역량이 무궁무진하다.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정 역시 "새 보금자리에서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좋은 작품으로 인사할 것"이라고 했다.

신혜정은 2012년 AOA 1집 싱글앨범 '엔젤스 스토리'로 데뷔했다. 같은 해 드라마 '신사의 품격'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청담동 앨리스'(2012~2013) 등에도 출연했다.

지민, 솔로 컴백 앞두고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두각

제이홉 '온 더 스트리트' 예고대로 '핫100' 60위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28·박지민)이 첫 공식 솔로 앨범 발매를 앞두고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18일 자 차트에 따르면, 오는 24일 컴백을 앞둔 지민은 빌보드 내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 '약속'(Promise)으로 2위, '크리스마스 러브(Christmas Love)'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가수 태양과 함께한 '바이브(VIBE)'는 9위로 재진입했다.

지민은 오는 24일 첫 솔로 앨범 '페이스(FACE)'를 발매한다. 17일엔 수록곡 '셋 미 프리(Set Me Free) Pt.2' 음원·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이밖에 방탄소년단은 솔로·단체로 빌보드 내 활약을 이어갔다.

지난 3일 발표된 제이홉의 솔로 싱글 '온 더 스트리트(on the street)'(with J. Cole)는 빌보드가 전날 트위터로 예고한 것처럼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60위를 차지했다. 솔로로서 해당 차트 네 번째 진입이자, 자체 최고 순위다. 앞서 지난 2019년 라틴계 미국 가수 베키 지와 함께 한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로 81위, 지난해 7월 발매한 첫 공식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 더블 타이틀곡이자 선공개곡인 '모어(MORE)'로 82위, '방화'(Arson)'로 96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온 더 스트리트'는 '디지털 송 세일즈' 2위,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각각 16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제이홉은 앞서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 최신 차트(3월 10~16일)에서 '온 더 스트리트'로 차트 37위에 오르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